

기부자의 통제소재와 경험한 사건 극성이 외집단 기부선호에 미치는 영향

박 기 경[†]

조선대학교

본 연구는 기부자의 통제소재와 경험한 사건의 극성이 외집단 기부선호에 어떠한 결합효과를 갖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기부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기부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상황에서 기부여부를 살펴본 데에 반하여 본 연구는 기부를 한다는 전제하에 외집단에 속한 기부수혜자에 대한 기부선택을 살펴봄으로써 소속감이나 유사성이 낮은 대상에 대한 기부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모형을 가설로써 설명하면, 내적통제소재자들은 부정적 사건에 비하여 긍정적 사건을 경험할 때 통제력 시행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높게 지각하여 외집단에 대한 기부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외적통제소재자들은 긍정적 사건에 비하여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때 사회적 연결성을 갖고자 외집단에 대한 기부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내적통제소재를 지각하는 소비자들은 부정적 사건보다 긍정적 사건을 경험할 경우 외집단에 속한 기부수혜자(예,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동)에 대한 기부선택율이 내집단에 속한 기부수혜자(예, 우리나라의 어려운 아동)보다 높은 반면, 외적통제소재를 지각하는 소비자들은 긍정적 사건보다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조건에서 외집단에 속한 기부수혜자에 대한 기부선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통제소재에 관한 기존 연구를 기부상황으로 확장하고, 탐색적으로나마 내집단 편향이 덜 나타나는 조건을 밝힘으로써 기부발생동기에 대한 흥미로운 탐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기부, 통제소재, 내적통제, 외적통제, 내집단, 외집단, 친사회적 행동

[†] 교신저자 : 박기경,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BK21+ 박사후 연구원, ramnin@naver.com

기부는 비영리기관에서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홍보물을 접하는 것이 흔해지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참여해보게 되는 경험이 되었다. 큰 액수의 사재(私財)를 기부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ARS(automatic response service)를 통한 손쉬운 참여나 판매액의 일부를 기부하는 기업 마케팅에 구매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해지고 있다. 기부참여에 앞서 관련 자료를 보면, 기부대상이 크게 국내후원과 국외후원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국내 아동을 위한 기부캠페인과 아프리카와 같이 머나먼 나라에 살고 있는 아동을 위한 기부캠페인을 유사한 빈도로 접하곤 한다. 각각의 기부 캠페인을 접할 때 일어나는 반응은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은 자국에 있는 기부대상에 대하여 우선은 심리적으로 더 가깝게 지각할 것이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속감에 대한 동기를 갖고 있어서 자신과 유사성이 높은 대상에 대하여 호감을 느끼기 때문이다(Baumeister & Leary, 1995; Brown, Novick, Lord, & Richards, 1992). 또한 다수는 아니지만 기부를 결정하는 순간 사람들은 여러 위험(예, 기부자원이 잘못 쓰일 위험, 봉사시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위험, 자신의 기부가 지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 등)을 지각하기도 하므로 (Yavas, Riecken, & Babakus, 1993) 기부자 입장에서 소속감과 유사성을 높게 지각할 수 있는 내집단(ingroup)(Brown et al., 1992; Goethals & Darley, 1977)에 비하여 외집단(outgroup)에 속한 기부수혜자에게 기부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머나먼 타국에 있는 대상에게 기부의도가 증가할 때도 분명 존재한다. 자신의 기부가 잘 이행될 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아프리

카에 굶주린 아이들에 대한 기부에 더 관심을 두게 되기도 한다. 만약 기부를 전제하였을 때 친밀성이나 유사성이 낮은 기부수혜자에 대한 기부의도가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을 밝힐 수 있다면 범세계적으로 기부를 독려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내집단 편향(ingroup bias) (Brewer, 1979)과 반대되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도 지닌다고 하겠다.

한편, 기부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기부수혜자의 상황을 접하게 됨으로써 촉발된 반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예, 기부수혜자에 대한 슬픔, 공감 및 동정심과 같은 감정 발생; 기부수혜자의 상황제시방식; 개인이나 집단으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기부메시지의 표현형태)(Baek & Reid, 2013; Barasch, Levine, Berman, & Small, 2014; Small & Verrochi, 2009; Smith, Faro, & Burson, 2013), 기부를 전제하여 내집단과 외집단에 속한 기부수혜자에 대한 기부의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의 결과들은 주로 내집단 구성원에 초점을 두어 기부의도가 높게 나타나는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Duclos & Barasch, 2014; Winterich, Mittal, & Ross, 2009).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의미있는 결과에 더하여 본 연구는 탐색적으로나마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기부선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저자는 내집단에 비하여 외집단에 대한 기부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기부자의 통제소재와 경험한 사건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제소재는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 및 상황의 통제여부에 대한 인과적 지각으로 내적통제와 외적통제로 나뉘며(Rotter, 1966) 대

상의 선택, 태도, 위험추구경향 및 향후 행동 등 넓은 범위에서 차별된 영향을 미친다 (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Burger, 1986; McKenna, 1993; Organ & Greene, 1974). 또한, 현실에서는 개인이 경험한 특정 사건이 발단이 되어(예, 복권당첨, 시험합격) 선행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통제소재와 경험한 사건의 극성은 외집단 기부선호에도 복합적인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첫째, 내집단에 비하여 기부수혜자와의 유사성과 소속감이 약하게 작용하는 외집단 기부선호에 초점을 두어 선행 연구를 확장하고, 둘째, 기부자의 통제소재와 경험한 사건의 극성 간에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또 다른 기부동기를 탐구하고자 하며 셋째, 밝혀진 결과를 통하여 비영리기관 및 마케팅 관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무적 함의점을 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먼저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문헌고찰로써 기부자 관점의 기부발생요인, 통제소재에 대하여 살펴본 후, 가설수립을 위하여 종속변수와 관련한 외집단에 대한 시각에 대하여 알아보고 통제소재와 경험한 사건이 어떤 상호작용효과를 발생시켜 외집단에 대한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예측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실험을 소개하고, 그 분석결과를 보고한 후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관련 문헌에 제공하는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할 것이다.

기부자 관점의 기부발생요인

기부자 관점에서 기부동기는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 기부자 개인 특성과 기부자가 겪은 경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부자가 갖고 있는 개인특성이 정보처리방식이나 기부행동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낳아 기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령이 높거나 여성성이 강한 사람들은 상호 의존적인 자기해석경향이 높고, 타인과의 조화를 중요시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적극적인 편으로 밝혀졌다(구지운, 2013; 황운용, 오민정, 정진철, 2013; Winterich et al., 2009). 특히 상호의존적인 자기해석을 하는 소비자들은 독립적 자기해석을 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타인과의 연결성을 중요시하여 내집단에 대한 기부를 통한 행복감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Duclos & Barasch, 2014). 또한, 사회계층(social status or social class)이 높은 사람들은 기부를 통해 부(富)의 인식을 할 수 있어 기부에 적극적일 때도 있지만(강철희, 김미옥, 2007) 타인에 대한 관대함이나 의존도가 낮아 친사회적 행동에 소극적이기도 하다(Piff et al., 2010). 도덕적 성향(moral identity)의 경우, 내면화된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보다 상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는 상황일 때 기부도도가 더 증가하였고(Winterich, Mittal, & Aquino, 2013), 명성에 대한 동기가 강한 사람들도 높은 기부도도를 보였다(Simpson & Willer, 2008).

둘째, 개인이 겪은 경험이 특정 목적을 일으켜 선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집단에서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자부심이나 소속감과 같은 관계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행을 하고(Lee & Shrum, 2012), 부정적 기분을 느낀 사람들이 긍정적 기분 전환을 하고자 할 때나 긍정적 기분을 느낀 사람들이 자기개선을 위한 목적을 갖게 될 때 타인을 위한 선행을 더 하려 한다(Cialdini & Kenrick, 1976; Fishbach & Labroo, 2007). 또한 개인의 행복한

기억을 회상시켜 긍정적 기분이 유발되었을 때 향상초점에 맞는 기부메시지를 접할 경우 (vs. 슬픈 기분) 목적추구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 기부의향이 더 증가하였다(Back & Reid, 2013). 그리고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이 자신과 유사한 불운을 겪을 때 이들을 위한 선행의도가 높아지기도 한다(Small & Simonsohn, 2008). 아울러 특정사건을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가까운 미래에 원하는 결과의 사건을 바랄 때도 기부가 증가하였다. 시험합격이나 성공적인 수술 등 결과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선행을 통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고자하여 기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Converse, Risen, & Carter, 2012).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통제소재(locus of control)는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 혹은 자신이 겪은 상황이나 결과의 원인주체에 대한 지각으로, 상황과 사건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여기는 내적통제소재(internal control)와 통제 강화의 주체가 운이나 기회, 강력한 타인에 의한 결과로 인식하는 외적통제소재(external control)로 구분된다(Rotter, 1966). 통제소재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내적통제소재자들은 외적통제소재자들에 비하여 매사에 더 자발적인 노력을 들이고, 자신감이 있으며 법칙준수에 적극적이며(예, Abramson et al., 1978)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게 행동하는 (예, 주도성, 사고성, 책임감 등)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선미, 정옥분, 1995). 또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Organ & Greene, 1974; Pryer & Distefano, 1971)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창의성을 더욱 고취시키려는 경향이 높다(성은현, 2004).

또한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면 대담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위협이나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한다(Allred & Smith, 1989). 반면, 외적통제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매사에 다소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데(Gilbert, Brown, Pinel, & Wilson, 2000), 학업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스로 문제해결을 도모하기보다 음주나 공상 혹은 외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anck & Robbins, 1979) 삶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 있어서도 외부통제소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울함이나 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되었다(Johnson & Sarason, 1978).

통제소재는 위험추구행동과 관련해서도 차별된 반응을 낳는다. 일반적으로 내적통제소재자들이 일반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획득할 가능성이 낮은 편일 때 외적통제소재자들에 비하여 위험추구행동에 더 적극적이며(Liverant & Scodel, 1960)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경쟁자들에 비하여 상품개발에 더 혁신적으로 임하고 위험을 부담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Miller, De Vries, & Toulouse, 1982). 다소 위험성이 존재하는 모험적 여가활동(예, 스쿠버 다이빙)에 있어서도 내적통제소재자들이 그 위험성을 낮게 지각하였다(정명희, 김남조, 2006). 또한, 통제력 지각을 높게 할 수 있는 운전자 입장에 놓여 있을 때(vs. 승객) 사고를 당할 가능성을 훨씬 낮은 걸로 판단하여 자기보호적 행동을 덜 하게 되고, 위험추구적 행동을 더 하게 된다(McKenna, 1993). 그러나 외적통제소재자들이 사고 원인을 외부의 운으로 귀인한 탓에 과속, 난폭, 음주운전과 같은 극단적인 위험행동을 더 저지르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최병희, 오주석, 박선진, 이순철, 2015).

가설수립

내집단과 외집단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은 사회정체성 이론 (social identification theory)을 중심으로 자기범주화, 소속감, 자기평가나 사회비교 등 다방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Tajfel, 1978; Tajfel & Turner, 1979; Tesser, 1986).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구성원으로써의 지각(사회적 범주화), 조직에 대한 자긍심, 감정적 몰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Tajfel, 1978). 자신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유사성이 높은 내집단 구성원을 비교기준으로 삼고, 그 비교의 결과는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Goethals & Darley, 1977). 또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소속감에 대한 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에(Baumeister & Leary, 1995) 내집단에 대한 감정적 유대감이 높아(Brown et al., 1992) 내집단 호의성(ingroup favoritism)이나 내집단 편향을 발생시킨다(Brewer, 1979; Tajfel, 1978). 특히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집단에 대한 인식이 강해져 내집단 편향이 더 강해지기도 하였다(Castano, Yzerbyt, Paladino, & Sacchi, 2002).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지각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측력이나 확실성을 갖고자 하므로(Kramer & Wei, 1999) 동질적인 집단을 선호하고 집단에 편입하고자 한다(Hogg & Mullin, 1999).

내집단-외집단과 관련한 연구를 토대로 하면, 기부상황을 포함하여 대부분 내집단에 대한 감정적 유대나 친밀성을 높게 지각하게 되는 반면, 외집단에 대해서는 유사성과 감정적 유대가 낮아 기부시 기부자원의 운용과정과 그 결과적 효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낄 가능

성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는 첫째, 기부는 근원적으로 위험한 행동으로 여기기 힘든 일이고, 기부자체로 감정적 보상을 받는 행동임에는 틀림없지만 비용관점에서만 보면 기부순간 여러 위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Phillips, 1982; Yavas et al., 1993). 이를 테면, 자신의 자원이 기부대상자에게 유용한 혜택으로 잘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는 금전적인 위험, 시간낭비 행동으로 끝날 수 있다는 시간오용에 대한 위험, 지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선행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사회적 위험 등을 지각할 수 있다(Yavas et al., 1993) 이때 기부수혜자가 기부자 입장에서 유사성이나 친밀성이 낮은 외집단이라면(Brown et al., 1992; Goethals & Darley, 1977) 이러한 위험이 발생될 가능성을 더 높게 지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험의 존재와 재화 사용결과의 불확실성에는 서로 정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주선희, 구동모, 이성엽, 2012)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기부는 기부과정이나 그 결과(예, 기부자원이 잘 전달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크게 지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집단에 속한 기부수혜자에게는 유사성이나 친밀성을 높게 지각할 수 있어 그러한 위험이 상쇄되지만 외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둘째, 기부를 한다는 결정은 실행적 마인드셋(implemental mindset)을 유발시켜 기부과정의 효율성이나 실현성에 대하여 더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목적달성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사고하지만 실행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식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므로(Gollwitzer & Bayer, 1999) 기부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집단에 비하여 내집단에 속한 기부수혜자에 대한 기부과정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내집단과 외집단의 차이를 토대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외집단에 비해서는 내집단에 속한 기부수혜자에 대한 기부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외집단 기부에 대한 위험을 낮게 지각하게 되거나 외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더 이입하게 된다면 내집단에 대한 기부선호가 약해지고 오히려 외집단에 대한 기부선호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통제소재와 경험한 사건이 가능할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통제소재와 경험한 사건이 외집단 기부선호에 미치는 영향

앞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통제소재와 경험한 사건이 외집단 기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가설로써 예측해보도록 한다.

첫째, 내적통제를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일을 겪는 경우에 비해 긍정적인 일을 겪을 때 외집단에 속한 기부수혜자에 대한 기부선호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통제력이 내부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일을 겪으면 부정적 일에 비하여 자신의 통제력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 비현실적 낙관주의나 통제력 환영(illusion of control)이 증가하고 위험추구적 경향이 강화된다(Chau & Phillips, 1995).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면, 내적통제소재자들이 긍정적 사건을 경험한 후 기부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부정적인 사건에 비하여 기부와 관련한 위험을 낮게 지각하게 될 것이다. 즉, 자신의 자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기부수혜자에

게 그 혜택이 잘 전달될 것이라는 자신감과 확신이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경우에 비하여 커질 것이다. 물론 자신과 상대적으로 가깝고 친숙한 대상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 또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행동일 수 있으나 이는 기존 통제력의 수행정도로 여기는 용이한 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더구나 내적통제소재자들은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면이 강하므로(Miller et al., 1982) 친숙한 대상보다는 낯선 대상을 위한 자원투자를 더 의미있게 여길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일을 겪을 때는 자신의 통제력이 실패했다고 지각하게 되므로 부족한 통제력을 채우고자 하고, 통제력이 손실된 경험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과제수행에 있어서 결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동기가 평소보다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에 비하여 실패나 위험가능성이 낮은 일을 시도하려할 것이므로 기부상황에서는 유사성과 친밀성이 높아 자신의 기부로 인한 결과적 혜택 실현과 그 과정에 불확실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가능한 내집단에 대한 기부선호로 이어질 것이다. 즉, 내집단 편향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정리하면, 내적통제소재자들이 긍정적인 일을 경험할 때 원하는 결과의 발생가능성이 낮아 다소 위험부담이 있는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반면, 부정적인 일을 경험할 때는 원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안전지향적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므로 이 두 조건의 반응차이가 외집단 기부선호의 차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외적통제소재자들은 긍정적인 일을 겪는 경우에 비해 부정적인 일을 겪을 때 외집단에 속한 기부수혜자에 대한 기부선호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외적통제소재자

들은 긍정적인 일 혹은 부정적인 일을 경험하더라도 그 원인을 외부의 힘으로 해석하기 때문에(Layton, 1985; Rotter, 1966) 경험한 사건의 극성이 다르다고 하여 통제력에 대한 평소 생각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부결정하에 기부수혜자에 대한 반응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연결성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는데(Lee & Shrum, 2012) 이때 외적통제소재자들은 내집단 구성원에 비하여 외집단 구성원과 상호작용한다고 생각할 때 그 연결성 욕구를 강하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집단 구성원은 언제든지 교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만 외집단 구성원은 상대적으로 교류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외적통제소재자들은 내적통제소재자들에 비하여 사건결과의 향방을 자신이 행한 행동보다는 우연에 의지하는 경향이 높다(Abramson et al., 1978; Tanck & Robbins, 1979).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기부와 개인에게 발생하는 긍정적 사건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기부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높게 작용한다(Converse et al., 2012). 따라서 사회적 연결성이나 타인과의 교류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내집단에 대한 기부가 더 용이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외적통제소재자들은 그러한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때 외집단에 속한 기부수혜자의 상황을 접할 때 이들의 상황에 대한 이입과 공감을 더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내집단 구성원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그들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외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더욱 판단하게 되고, 기부수혜자의 상황을 자신의 부정적 상황

과 더 유사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적통제소재자들도 때에 따라서는 위험한 행동을 하려하고(최병희 등 2015) 상황요인에 대해 주목하는 경향이 강해지므로(Piff et al., 2010) 외집단에 속한 기부수혜자에 대한 기부에 오히려 적극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외적통제소재자들은 긍정적인 사건에 비하여 부정적인 일을 경험하였을 때 외집단에 속한 타인에 대한 기부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가설과 연구모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1: 내적통제소재의 소비자들은 긍정적 사건을 경험할 때 부정적 사건에 비하여 외집단에 대한 기부선호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1-2: 외적통제소재의 소비자들은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때 긍정적 사건에 비하여 외집단에 대한 기부선호가 더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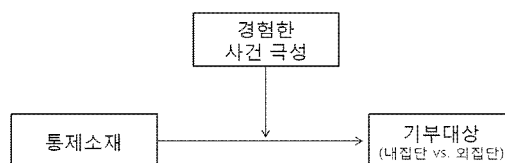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실 험

실험설계 및 참가자

실험은 2(통제소재: 내적통제 vs. 외적통제) X 2(경험한 사건의 극성: 긍정 vs 부정)로 집단 간 설계되었고, 시나리오로 통제소재와 경험한 사건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가설을 검증

하였다. 시나리오의 내용은 두 변수의 조작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생 참가자들이 잘 이입할 수 있는 취업상황으로 구성하였다. 취업상황은 합격, 불합격 상황이 결과로써 나타나고, 참가자 자신의 노력 혹은 외부의 힘, 즉 운이 작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므로 통제소재의 조작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박기경, 2016). 또한 이러한 방식은 선행연구에서도 사용한 상황이기도 하다(예, Converse et al., 2012). 시나리오 전반부에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인턴모집에 응시하는 상황으로써 거의 모든 조건이 같은 대학친구들과 응시준비를 하는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사건의 극성 조작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긍정적 사건 조건은 동일한 조건의 친구들과 달리 참가자 자신만 인턴모집에 합격하는 상황으로 제시하였고, 부정적 사건 조건은 동일한 조건의 친구들은 합격한 반면 참가자 본인은 불합격된 상황으로 조작하였다. 통제소재의 조작은 이러한 결과가 발생된 원인에 대한 해석차이로 이루어졌는데, 내적통제소재 조건은 인턴합격 여부를 참가자 자신의 내부의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결과로 해석하는 것으로, 외적통제소재 조건은 잘 알지 못하는 외부 혹은 운명의 힘에 의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으로 차이를 두었다(부록 참조). 시나리오 후반부에는 인턴 합격여부 소식을 들은 후 학교 밖 정문에 기부단체를 보고 어느 기부처에 기부를 할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기부처는 ‘우리나라 고아원에 기부되는 것’과 ‘아프리카 고아원에 기부되는 것’ 중 선택하도록 지시하였다. 즉, 내집단 기부처는 우리나라 고아원으로, 외집단 기부처는 아프리카 고아원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실험참가자와 동일한 국가나 동맹 관

계에 놓인 국가에 대한 기부를 내집단 기부로, 타국가나 동맹관계가 아닌 국가에 대한 기부를 외집단 기부로 조작한 선행연구를 따랐다(Winterich et al., 2009). 마지막으로 통제소재의 조작점검항목을 측정하였다. 통제소재의 조작점검은 내적통제소재와 외적통제소재의 조작 정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내적통제소재의 조작점검 항목은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나 자신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느꼈다’, 외적통제소재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를 각각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참가자는 서울 소재 학부생 11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평균연령: 23.6, 여성 비율: 48.7%), 참가에 대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분석 결과

조작점검 결과

먼저 통제소재에 대한 조작점검결과, 내적 통제소재에 배정된 참가자들이 상황의 통제력이 본인에게 있다고 지각하였고(5.39_{내적통제} vs. 4.38_{외적통제}; $t(112) = 4.194, p < .001$), 외적통제소재집단의 참가자들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외부에 있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3.41_{내적통제} vs. 4.08_{외적통제}; $t(112) = -2.318, p < .05$). 아울러 두 측정 변수의 상관분석결과 부의 관계를 갖고 있어($r = -.418, p < .01$) 통제소재의 조작은 성공하였다.

외집단 기부 선택률에 대한 가설 검증

가설검정을 위해 통제소재, 사건극성, 두 변

표 1. '외집단 기부선택'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d(χ^2)	유의확률(p)	Exp(B)
통제소재	.217	.273	.632	.427	1.242
경험한 사건 극성	-.073	.273	.072	.789	.930
통제소재 X 경험한 사건 극성	.699	.273	6.570	.010	2.013

수의 상호작용을 각각 독립변수로 정의하고 (-1: 내적통제소재, +1: 외적통제소재 ; -1: 긍정적 사건, +1: 부정적 사건), 외집단에 대한 기부선택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0: 우리나라 고아원 선택, 1: 아프리카 고아원 선택). 분석결과에 의하면, 통제소재의 주 효과($\beta = .217, \chi^2(1) = .632, p > .40$)와 사건발생 극성의 주 효과($\beta = -.073, \chi^2(1) = .072, p > .75$) 각각은 유의하지 않았고, 두 변수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였다($\beta = .699, \chi^2(1) = 6.570, p = .01$) (표 1 참조).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선택패턴을 살펴보면, 내적 통제소재를 가진 소비자들의 경우 긍정적 사건을 경험한 경우 외집단 기부처에 대한 기부참여가 더 높게 나타났다(27.27% 긍정적 사건 vs.

7.41% 부정적 사건; $z = 1.85, p < .05$), 외적통제소재를 가진 소비자들의 경우 부정적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외집단 기부처에 대한 기부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12.5% 긍정적 사건 vs. 33.3% 부정적 사건; $z = -2.06, p < .05$) (그림 2 참조).

결론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기부결정을 전제하였을 때 소비자의 통제소재와 경험의 극성이 외집단 기부선호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실험결과에 의하면, 내적통제소재 조건에 배분된 참가자들은 긍정적 경험을 할 경우 부정적 경험에 비하여 외집단, 즉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동에 대한 기부선택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아동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반면, 외적통제소재 조건에 배분된 참가자들은 부정적 경험을 할 경우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동에 대한 기부선택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고 있다. 첫째, 외집단에 속한 기부수혜자에 대한 기부선호조건을 탐구하였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내집단에 대한 기부의향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를테면 사회적 연결성, 타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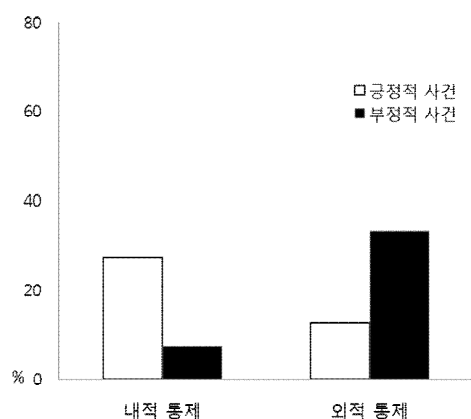


그림 2. 통제소재와 경험한 사건 극성이 외집단 기부수혜자 기부선택에 미치는 영향(실험 결과)

자신과 동일시 혹은 포함시키려는 의향 등을 통하여 기부수혜자와의 친밀성이 기부를 이끌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다(예, Duclos & Barasch, 2014). 비록 메커니즘을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자신과 심리적으로 친밀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선호조건을 탐색함으로써 내집단 편향과 반대된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통제소재가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탐색적으로나마 내적통제소재자와 외적통제소재자의 차별된 기제를 제시하였다. 즉, 내적통제소재자들은 통제력 강화로 인한 위험민감도가 감소한 데서, 외적통제소재자들은 외집단에 속한 기부수혜자에 대한 이입이 주된 기제가 될 것으로 제안하였다.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여 기부여부를 살펴본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경험한 사건에 따라 타인에 대한 인식(호혜성 지각)이 공통적으로 주요한 메커니즘 역할을 하였으나(박기경, 2016) 기부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어느 집단에 기부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다른 메커니즘들이 작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셋째, 기부독려를 위한 전략을 비영리기관을 포함하여 마케팅 관리자에게 제안해볼 수 있다. 비영리기관에서는 흔히 기부독려를 위하여 기부수혜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보나 기부자들이 기부 후 가질 행복함과 뿌듯함을 제시하곤 한다. 물론 이러한 방식도 유효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응용하는 것도 기부독려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내적통제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에게는(예, 남성, 젊은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즐거운 일을 떠올리게 하고(예, 당신의 행복을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어려운 아이들과 나누세요), 외적통제소재에 대한 지각이 높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예, 여성, 노

년층) 슬픈 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예, 당신이 힘들었던 때 느꼈던 슬픔을 먼 곳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나누세요.) 기부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향후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밝히는 메커니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실험을 통하여 통제소재와 경험한 사건의 극성이 외집단 기부행동에 미치는 흥미로운 결과를 밝혔으나 그 기제를 증명하지는 못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통제소재 각각이 공통된 매개를 가질 수도 있으나 다른 매개를 내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령, 외집단에 대한 기부시 지각된 위험의 차이가 공통되게 작동할 수도 있고, 내적통제소재자들은 긍정적 사건 경험이 통제력 강화를 일으킨 결과로써 비현실적 긍정성(unrealistic positivism)과 같은 기제가(Taylor & Brown, 1988; Weinstein, 1982), 외적통제소재자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에 주된 기제(Betancourt, 1990; Dearthoff, Kendall, Finch, & Sitarz, 1977)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는 실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집단에 대한 기부의향 증가와 관련하여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기부자가 지각하는 기부수혜자와의 심리적 거리와 기부시점의 시간적 거리간 적합성(fit)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먼 미래 기부계획을 질문받을 경우 심리적 거리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때는 사회적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외집단에 대한 기부의도가

높을 것이고, 가까운 미래나 현재 기부의향을 질문받게 되면 반대로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내집단에 속한 대상에 대한 기부의도가 높을 수 있는 것이다(예, Liberman, Sagristano, & Trope, 2002; Zhao & Xie, 2011). 아울러, 기업의 착한 마케팅의 하나로 기업의 기부대상의 역할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 기업의 기부처가 소비자입장에서 친밀성이나 유사성을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기업의 기부마케팅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부마케팅에 대한 선호를 넘어 해당 기업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부여부를 질문하는 것과 어느 집단에 기부할 지에 대한 질문이 갖는 차별된 기제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으로 생각된다. 통제소재와 경험한 사건의 극성에 따른 기부여부를 살펴본 경우, 내적통제소재자들은 긍정적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기부의향이 증가한 반면, 외적통제소재자들은 경험한 사건의 극성에 따른 기부의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박기경, 201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부결정 후 특정집단에 대한 선호를 살펴본 것에 있어서는 외적통제소재자들이 차별된 반응을 보였다. 마인드 셋의 차이 외에 다른 요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강철희 & 김미옥 (2007). 부유층의 기부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2), 5-38.

구지윤 (2013). 기부행동의 성별 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7(단일호), 93-122.

김선미 & 정옥분 (1995).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3(3), 149-163.

박기경 (2016). 나에게 발생한 긍정적인 일은 기부를 증가시키는가? 통제소재의 역할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7(4), 35-56.

성은현 (2004). 어머니의 내외통제성과 창의적 가정환경 및 자녀의 창의적 인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3), 79-93.

정명희 & 김남조 (2006). 모험성 레크리에이션에서의 통제소재와 전문화 및 위험지각의 관계. *관광학연구*, 30(4), 27-46.

주선희, 구동모, & 이성엽 (2012). 세 가지 차원의 무형적 속성이 소비자의 불확실성, 위험지각과 구매 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5, 143-169.

최병희, 오주석, 박선진, & 이순철 (2015). 교통행동 통제소재와 위험운전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8(1), 1-21.

황윤용, 오민정, 정진철 (2013). 젊은 세대와 시니어세대간 기부의도에 관한 비교연구. *경영학연구*, 42(6), 1715-1736.

Abramson, L. Y., Seligman, M. E.,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1), 49-74.

Allred, K. D., & Smith, T. W. (1989). The hardy personality: Cognitive and physiological responses to evaluative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57-266.

- Baek, T. H., & Reid, L. N. (2013). The interplay of mood and regulatory focus in influencing altruistic behavior. *Psychology & Marketing, 30*(8), 635-646.
- Barasch, A., Levine, E. E., Berman, J. Z., & Small, D. A. (2014). Selfish or selfless? On the signal value of emotion in altruistic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3), 393-413.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etancourt, H. (1990). An attribution-empathy model of helping behavior behavioral intentions and judgments of help-giv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3), 573-591.
- Brewer, M. B.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6*(2), 307-324.
- Brown, J. D., Novick, N. J., Lord, K. A., & Richards, J. M. (1992). When Gulliver travels: Social context, psychological closeness, and self-apprais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5), 717-727.
- Burger, J. M. (1986). Desire for control and the illusion of control: The effects of familiarity and sequence of outcom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1), 66-76.
- Castano, E., Yzerbyt, V., Paladino, M. P., & Sacchi, S. (2002). I belong, therefore, I exist: Ingroup identification, ingroup entitativity, and ingroup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2), 135-143.
- Chau, A. W., & Phillips, J. G. (1995). Effects of perceived control upon wagering and attributions in computer blackjack.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22*(3), 253-269.
- Cialdini, R. B., & Kenrick, D. T. (1976). Altruism as hedonism: A social development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of negative mood state and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5), 907-914.
- Converse, B. A., Risen, J. L., & Carter, T. J. (2012). Investing in karma when wanting promotes helping. *Psychological Science, 23*(8), 923-930.
- Deardorff, P. A., Kendall, P. C., Finch, A. J., & Sitarz, A. M. (1977). Empathy, locus of control and anxiety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40*(3 suppl), 1236-1238.
- Duclos, R., & Barasch, A. (2014). Prosocial behavior in intergroup relations: How donor self-construal and recipient group-membership shape generos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1*(1), 93-108.
- Fishbach, A., & Labroo, A. A. (2007). Be better or be merry: How mood affects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93*(3), 158-173.
- Gilbert, D. T., Brown, R. P., Pinel, E. C., & Wilson, T. D. (2000). The illusion of extern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79*(5), 690-700.
- Goethals, G. R., & Darley, J. M. (1977). Social comparison theory: An attributional approach. Social comparison processes: Theoretical and

- empirical perspectives, 259-278.
- Gollwitzer, P. M., & Bayer, U. (1999). Deliberative versus implemental mindsets in the control of action. Dual-process theories in social psychology, 403-422.
- Hogg, M. A., & Mullin, B. A. (1999). Joining groups to reduce uncertainty: Subjective uncertainty reduction and group identification. In D. Abrams & M. A. Hogg(Eds.),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gnition*(pp.249-279). Oxford, UK: Basil Blackwell.
- Johnson, J. H., & Sarason, I. G. (1978). Life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Internal-external control as a moderator variab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2(3), 205-208.
- Kramer, R. M., & Wei, J. (1999). Social uncertainty and the problem of trust in social groups: The social self in doubt (pp. 145-168). Lawrence Erlbaum Associates: London, UK.
- Layton, C.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ity and E, N, P and L: An experiment and review.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4), 505-507.
- Lee, J., & Shrum, L. J. (2012). Conspicuous consumption versus charitable behavior in response to social exclusion: A differential needs explan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9(3), 530-544.
- Liberman, N., Sagristano, M. D., & Trope, Y. (2002). The effect of temporal distance on level of mental construa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6), 523-534.
- Liverant, S., & Scodel, A. (1960).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as determinants of decision making under conditions of risk. *Psychological Reports*, 7(1), 59-67.
- McKenna, F. P. (1993). It won't happen to me: Unrealistic optimism or illusion of control?.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4(1), 39-50.
- Miller, D., De Vries, M. F. K., & Toulouse, J. M. (1982). Top executive locus of control and its relationship to strategy-making, structure, and environmen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5(2), 237-253.
- Organ, D. W., & Greene, C. N. (1974). Role ambiguity, locus of control, and work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9(1), 101-102.
- Phillips, M. (1982). Motivation and expectation in successful volunteerism.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 Piff, P. K., Kraus, M. W., Côté, S., Cheng, B. H., & Keltner, D. (2010). Having less, giving more: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5), 771-784.
- Pryer, M. W., & Distefano Jr, M. K. (1971). Perceptions of leadership behavior, job satisfaction, and internal-external control across three nursing levels. *Nursing Research*, 20(6), 534-536.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28.
- Simpson, B., & Willer, R. (2008). Altruism and indirect reciprocity: The interaction of person and situation in prosocial behavior.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1(1), 37-52.

- Small, D. A., & Verrochi, N. M. (2009). The face of need: Facial emotion expression on charity advertisemen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6(6), 777-787.
- _____, & Simonsohn, U. (2008). Friends of victims: Personal experience and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5(3), 532-542.
- Smith, R. W., Faro, D., & Burson, K. A. (2013). More for the many: The influence of entitativity on charitable giv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9(2), 961-976.
- Tajfel, H.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cademic Press.
- _____,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33-47. Monterey, CA: Brooks-Cole.
- Tanck, R. H., & Robbins, P. R. (1979). Assertiveness, locus of control and coping behaviors used to diminish tens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3(4), 396-400.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2), 193-210.
- Tesser, A. (1986). Some effects of self-evaluation maintenance on cognition and action.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pp. 435-464).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Weinstein, N. D. (1982). Unrealistic optimism about susceptibility to health problem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5(4), 441-460.
- Winterich, K. P., Mittal, V., & Aquino, K. (2013). When does recognition increase charitable behavior? Toward a moral identity-based model. *Journal of Marketing*, 77(3), 121-134.
- _____, Mittal, V., & Ross, W. T. (2009). Donation behavior toward in-groups and out-groups: The role of gender and moral ident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6(2), 199-214.
- Yavas, U., Riecken, G., & Babakus, E. (1993). Efficacy of perceived risk as a correlate of reported donation behavior: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1(1), 65-70.
- Zhao, M., & Xie, J. (2011). Effects of social and temporal distance on consumers' responses to peer recommenda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8(3), 486-496.

원고접수일 : 2016. 05. 09.

수정원고접수일 : 2016. 10. 31.

게재결정일 : 2016. 11. 04.

The Effect of Doner's Locus of Control and Experienced Events on Out-Group Donation Preferences

Kikyong Park

Postdoctoral Researcher, BK21+,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Although previous studies related to donation have mainly focused on the emotional response drawn from the donee or doner's individual difference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effect of consumers' locus of control and their personal experiences regarding donations toward out-group. Donations toward out-group may involve uncertainty or risk in finance, time and social risk compared to donations toward in-group. Hence, locus of control is predicted to cause interaction effect with experienced events on donation behavior. Drawing upon locus of control and doner's characteristics in the donation context, hypothesis 1 posits that people in an internal control will show greater donation preference toward out-group members when they experience a positive event (vs. a negative event) because they feel control and confidence in the efficiency of their donations. Whereas people in an external control will show greater donation preferences when they experience a negative event(vs. a positive event) due to the motive of social connection. This research adopted a scenario and conducted an experiment. The experiment used a 2(locus of control: internal control vs. external control) X 2(valence of event: positive vs. negative) between subject design with the two variable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key dependent variable was donation choice toward out-group (vs. in-group).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participants in an internal control showed higher preference toward African disadvantaged children (vs. Korean disadvantaged children) when they experienced a positive event, whereas those in an external control showed the opposite pattern. In conclusion, consumers' donation preferences to the out-group depend on the locus of control and valence of experienced event. Future research should explore various moderators and examine the mediation. The research findings provide knowledge for better understanding of locus of control and apply it to consumer psychology and marketing areas.

Key words : locus of control, internal control, external control, donation, out-group, in-group, pro-social behavior

부 록

• 실험 시나리오

긍정사건	부정사건
<p>귀하는 요즘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위해 지원할 회사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졸업후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는 같은 과 친구들과 거의 모든 부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관심있던 회사에서 인턴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되어 응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표공지를 보니 귀하만 인턴모집에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준비과정도 함께 했던 친구들과 달리 귀하만 소중한 기회를 얻고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p>	<p>귀하는 요즘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위해 지원할 회사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졸업후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는 같은 과 친구들과 거의 모든 부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관심있던 회사에서 인턴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되어 응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표공지를 보니 귀하만 인턴모집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준비과정도 함께 했던 친구들과 달리 귀하만 소중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p>
내적통제	외적통제
<p>귀하는 이러한 긍정(부정)적인 일이 귀하에게 왜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귀하가 잘 아는 내부의 힘, 스스로가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았기(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귀하에게 발생한 일은 귀하가 조절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에 의한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모두 내가 선택하고 노력한 결과이지, 운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p>	<p>귀하는 이러한 부정(긍정)적인 일이 귀하에게 왜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귀하가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의 힘, 운명에 의한 힘이 부족했기(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귀하에게 발생한 일은 귀하가 조절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은 외부의 운에 의한 것이지 귀하가 선택하고 노력한 결과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p>